



“울지마 아람아, 넌 외롭지 않아”

“펜싱은 끝났다”

외신, 올림픽 최약판정 비난

펜싱 1초 황당 판정에 세계가 ‘들쭉’ 패러디·유행어까지 등장 오심 비난

2012 런던올림픽 여자 에페 준결승에서 빗어진 ‘멈춰선 1초 오심’에 지난 31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에는 누리꾼의 비난이 이어지는 등 전국이 ‘황당 펜싱 판정’에 들쭉였다.

수영(박태환)과 유도(조준호)에 이어 이날 펜싱 신아람에 대한 오심이 나오자 일부 누리꾼들은 ‘런던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는 등 분노했다. 또한, 트위터 등에는 ‘1초 오심’에 대한 패러디와 함께 유행어까지 등장하며 신아람의 아쉬움을 격려했다.

◁‘1초 판정’ 누리꾼 분노=트위터 아이디 ‘tomas* * * *’는 “2012년에 1초는 멈춰버렸다. 올림픽도 그 순간 멈췄다. 런던올림픽 지금부터 보이콧한다”고 선언했다. “올림픽 보이콧하면 안되나, 선수들 우는 모습 그만 보자”(Kyungm* * *)는 의견도 나왔다.

유독 한국 선수들에게 쏟아지는 오심에 런던 올림픽을 비난하는 글도 많았다. 트위터 아이디 ‘Dong* * * *’는 “런던 올림픽은 무슨, 런던 운동회네요. 체육대회도 이

것보다는 낫겠네요”라고 지적했다. ‘an* * * *’는 “재들은 1초가 걸어서 우리랑 시차가 생기거나? 그런 거야? 개들은 LTE안써서 반응속도가 느려서~”라고 비아냥까지 등장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등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펜싱 판정논란이 일자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경기 집행위원들이) 실수를 인정했지만 규칙에 따라 판정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고 유도 조준호의 판정승 범복에 대해 이기홍 한국선수단장이 “IOC 판정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등 우리나라 체육계 인사들이 올림픽 주최 측을 옹호하며 두둔한 데 따른 비판이다. 트위터 아이디 ‘osh* * * *’는 “한국선수단장이 IOC 존중한다는 말은 도둑맞은 승부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고 반문했고 “대한체육회장이 우리나라를 대변해야지 저쪽을 대변하면 쓰나”(okayman* * * *)라는 의견도 나왔다.

새벽 신아람의 경기를 지켜본 시민들도 분노를 참지 못했다. 시민 장모(여·45)씨는 “오심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한 숙도 자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한체육회 등에서 주최 측에 강하게 항의하는 것 이외에도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배수의 진’까지 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신아람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다. 신아람의 미니홈피 방문객에는 경기 직후인 이날 수 천여 건이 넘는 격려의 글이 폭주하면서 방문이 제한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방문록에 “새벽에 경기 보면서 너무 억울해서 함께 울었다” “4년간 흘린 피땀에 또 한번 울분을 토한다”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 영웅이다” “오심에도 딛고 일어서 경기 치르는 모습을 보고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다” “당신이 우리의 금메달리스트” 등의 글을 남겼다.

◁‘1초 오심’ 유행어·패러디까지 등장=많은 네티즌들은 “오늘 출근하는 데 1초 걸렸다.” “1초가 그 정도면 수명이 반절 줄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인기 연예인들도 ‘1초 오심’을 트위터에 통해 비교했다. 개그맨 안선영은 “오늘 1초 잤다. 폭 잡다. 부산까지 1초에 갔나”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고, 배우 이연은 “오늘 녹화 2회분인데 20초 만에 끝날 듯”이라고 적었다. 개그맨 박휘순은 “화장실 갔다 오고 세수하고 음료수 한잔 마시는데 1초 걸렸다”며 오심을 비꼰다.

‘멈춰버린 1초’에 메달을 도둑맞은 신아람의 눈물에 외신도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ESPN은 “코리아 펜싱 선수의 통탄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통해 펜싱 오심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ESPN은 “올림픽에 나서는 선수들은 최고의 판정 아래 경기를 치를 권리가 있다.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개최국 영국의 스카이 뉴스는 ‘펜싱은 끝났다’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스카이 뉴스는 “팬들은 야유를 보냈고, 경기장은 혼란스러웠다”라며 신아람의 아쉬움을 대변했다.

또 텔레그래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런던올림픽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될 사건”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프랑스의 레퀴프는 “지금 금메달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AFP 통신은 이번 논란을 올림픽 사상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다섯 가지 판정사례 가운데 하나로 거론했다. 다른 오심 사례로는 1972년 뮌헨 대회 옛 소련과 미국의 남자 농구 결승전에서 심판이 경기시간을 더 주는 바람에 미국이 1점 차로 금메달을 놓친 것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여자 67kg 이상급 8강전에서 세라 스타브스(영국)가 판정패를 당했다가 비디오 판정 후 결과가 뒤집힌 일이 꼽혔다.



◀신아람이 지난 31일(한국시간) 여자 에페 개인전이 열린 영국 엑셀 런던 사우스 아레나 피스트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가 이긴건데 억울해요” 폭풍 눈물

신아람 “3~4위전 어떻게 치렀는지도 몰라”

2012 런던올림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 때문에 결승 문턱에서 좌절한 신아람(26·계통시청)은 “억울하다”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신아람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영국 엑셀 런던 사우스 아레나에서 열린 펜싱 여자 에페 준결승에서 브리타 하이데만(독일)에 5-6으로 졌다. 여러 차례 하이데만의 공격을 막으며 버텼음에도 경기장의 시계가 흐르지 않은 탓에 마지막 공격을 허용하고 말았다.

코치진이 강력히 항의하는 동안 1시간 넘게 피스트에 홀로 앉아 울면서 억울한 속을 끓이던 신아람은 취

재진의 질문에 “내가 이긴 건데 너무 억울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 같다”며 조용히 대기실로 돌아갔다.

억울한 판정과 긴 항의 과정에 지쳐버린 신아람은 이어 열린 3~4위 결정전에서도 패해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

신아람은 3~4위 결정전이 끝나고 나서야 마음을 정리한 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신아람은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만큼 마음이 교차한다”며 “억울한 판정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지만 내가 당사자가 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1초가 그리 긴 줄은 몰랐다.

마지막 4번째 공격도 상당히 길었다”고 지적했다.

신아람은 피스트에 머무지 않아 있던 1시간이 올림픽만 바라보고 준비하던 지난 4년과 비교해도 될 정도로 길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니 당연히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무슨 정식으로 3~4위전을 치렀는지 모르겠다”면서 “동메달이라도 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편히 있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제대로 뛰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신아람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내내 컨디션이 좋았다.금메달을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했다”면서 말을 잊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내일 밤 광주시청 광장서 응원해요”

양궁 기보배 개인전

제30회 런던올림픽 여자양궁 개인전에 출전하는 광주시청 소속 기보배의 금메달 획득을 기원하는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진다.

광주시는 런던 올림픽 여자양궁 개인전 결승전이 열리는 2일 밤 9시30분부터 시청 문화광장에서 대규모 응원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응원전에는 기보배의 부모와 가족, 박채순 코치의 부인, 동문인 광주여대 학생,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댄싱팀, 그룹사운드, 대중가수 등의 축하

공연 등도 함께 이뤄져 흥겹고 열정적인 응원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보배는 지난 2003년 창단한 광주시청 양궁팀 소속으로 지난 달 29일 열린 여자양궁 단체전에서 이성진(전북도청), 최현주(창원시청)와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광주시 소속 선수로는 광주시청 양궁팀 기보배 선수와 육상 세단 뛰기 김택현이 참가했으며, 서구청 펜싱팀 최은숙, 체조 양하선·김희훈, 근대 5종에 황우진이 출전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만경

- 김중두



올림픽 정신 맞아?!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대표전화, (062) 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 234-3141

국내 여행 **스타트립**으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3일!

선박 **목포-제주도 실속 ₩109,000~** **폼격 ₩169,000~**
장흥-제주도 실속 ₩149,000~ **폼격 ₩18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10,000), 석식, 수송비(광주-목포&장흥)

항공 **광주-제주도 ₩31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10,000), 석식
>> 여름 성수기 별도문의바랍니다.

울릉도 **2박 3일 ₩325,000~** **홍도, 흑산도**
1박 2일 ₩294,000~ **1박 2일 ₩189,000~**

중국

- ★ 무안-상해, 장가계 4일 ₩1,150,000 (출발일 8/13 확정)
- ★ 무안-상해, 장가계 4일 ₩999,000 (출발일 8/20 확정)
- ★ 무안-상해, 장가계, 주가각 4일 ₩1,500,000 (출발일 9/29 확정)
불포함: 개인적인 경비
- ★ 무안-북경 4일 ₩499,000~ ★ 무안-북경 5일 ₩59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90,000), 단체비(₩30,000), 기사&가이드

무안공항 전세기 방콕 파타야

최고의 인기 방콕 파타야!! 무안 전세기 가족과 함께 마지막 기회 한정특가

방콕 파타야 3박4일 ₩599,000~ **출발일 (8/4,8/7)**

3박4일 방콕 파타야 ₩799,000~ **출발일: 8/11**

3박5일 방콕 파타야 ₩799,000~ **출발일: 8/7**

불포함: 개인경비, 가이드및기사팀, 유류할증료

일본 **여름이벤트** **여행객에게 특별하게 케어해준다는 대박한 이벤트!! 1000원 이하대부터**

- ★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름휴가!! **키타큐슈 4일 ₩549,000**
출발일 8/15, 19, 22, 23
- ★ **[폼격] 일본 전통료칸 스지유 마을 온천 즐기 4일 ₩499,000**
출발일 8/15, 19, 22, 23 불포함: 기사&가이드(₩20,000)
- ★ 가족과 함께 일본 고급펜션 4일 ₩379,000
출발일 8/15, 19, 22, 23 불포함: 기사&가이드(₩20,000)
- ★ 청단풍이 아름다운 유후단케 등반 4일 ₩379,000
출발일 8/15, 19, 22, 23 불포함: 기사&가이드(₩20,000)
- ★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텐보스 4일 ₩599,000
출발일 8/22 불포함: 기사&가이드(₩20,000), 광주-부산 수송

항공으로 떠나는 일본 즐기기~!!

- ★ **[폼격] 항공으로 떠나는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4일 ₩899,000**
출발일 8/28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 ★ **[실속] 오사카, 교토, 고베 3일 ₩729,000**
출발일 8/28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기사&가이드

동남아

- ★ **베트남 북부/캄보디아 6일 ₩669,000~** **출발일: 10/8, 10, 14, 26, 28**
불포함: 광주-인천 수송비, 텍스&유류할증료(₩183,000/8명기준), 기사&가이드(₩50), 김방머(₩25), 공항중계(₩10), 갈라사(₩10)>8명 이상 출발가능

추석연휴에 떠나는~

- ★ **보라카이 직항 5일(일금리조트) ₩849,000~**
- ★ **보라카이 직항 5일(노팁,준특급리조트) ₩999,000~** ★ **세부 5일 ₩899,000~**

유럽 **추석연휴 갈차게 즐기~!!**

- ★ **[노팁/항공이동] 옹프라우+2대음선 서유럽 4국 10일 ₩2,490,000~** **출발일: 9/26**
- ★ **[서유럽일주] 하이디산/베르사유+서유럽 6국 12일 ₩2,390,000~** **출발일: 9/27**
- ★ **[노팁/항공이동] 옹프라우+2대음선 서유럽 4국 10일 ₩2,890,000~** **출발일: 9/28**
- ★ **암스텔담+나폴로스 서유럽 4국 8일 ₩2,490,000~** **출발일: 9/30**
- ★ **할슈타트+프라하야경+캄파섬 "클림트 키스" 동유럽 3국 7일 ₩2,090,000~** **출발일: 9/30**

[홍콩/베트남] 호주 시드니 6일 ₩1,390,000~

특 전: 5대특성(정통스테이크, 스타워터, 디너크루즈, 로즈힐 볼링클럽 뷔페석, 베베큐 스테이크) 사막캠핑체험&올림픽크루즈, 블루마운틴, 시드니 야쿠아리움, 울릉공, 동부해안+시내명승관광
불포함: 기사&가이드(₩50), 유류할증료(₩30,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여행업 등록번호: 2003-1호

•여행업 등록번호: 2003-1호 / 여행계약 기입일제
•여행업 등록: 항공 및 선적, 전액버스/전액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험 가입(예외사항: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세(법정),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외담: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각 비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여행**